

# 韓國文學史上 漢文學의 位置

沈 汝 澤

## I

韓國文學은 分明히 하나의 歷史的인 흐름에서 把握되어져야 하며, 繼承되어져야 하는 持論에는 異議가 없는 限, 어느 時代의 斷面만을 考察한다거나 特定한 장르에 限하여 考究한다는 것, 혹은 특정의 表記法에 의하여 規定지을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게다가 文學을 포괄하고 있는 文化의 形成이 自生적일 수 없다는 명제 하에서 우리의 연구는 多角的인 檢討와 아울러 可能性을 시사하는 종합, 분석, 비판이 並行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從來의 研究에 참가하여 본 연구는 다시 韓國文學 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淸澄한 이론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前提했듯이 문학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므로 綜合的인 把握을 거친 후, 分析의 過程으로 옮겨가야 하는 當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에 대한 종합, 정제된 명제를 주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韓國文學史의 諸般 問題를 연구하는 데에는 모든 社會現象이나 歷史現象이 그러하듯, 相互作用이 없이는 不可하다. 그러므로 20世紀初(1920년대)를 즈음하여 그 이후에 형성되어진 國文文學으로서만 國文學을 規定하려는 論理와, 漢文學도 우리의 文學에 끼워넣자는 廣義의 國文學에 의한 논리 및 兩者의 折衷을 노리는 절충안 등은 각기 그 矛盾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들 각 논리의 虛實을 진단하여 그 허실을 파악한 후 部分的이나마 包容력 있는 韓國文學의 체계를 樹立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큰 關鍵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에 主眼點이 되었던 漢文學에 대한 諸般 問題이다.

文學研究의 目的이 작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을 구하는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어진다는 생각에 의하면 제학자들의 努力의 흔적은 반드시 연구자가 한번쯤 考究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文學의 範疇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漢文學의 體系를 세우거나 한문학을 부정하는 작업, 혹은 한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여 그 개념을 우리의 國文學에 용해시키려는 努力을 한 學者들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3·1 運動 以後부터 만주사변 전까지의 新文學 제 2期 학자들에 의한 漢文學의 要素를 一切 否定하는 作業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廣義의 國文學과 狹義의 國文學으로 國文學을 分類한 학자들의 작업 즉 漢文學도 우리 國文學의 영역으로 看做하여 漢文學을 包括하는 國文學의 체계를 세우려는 학자들의 作業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漢文學에 대한 正確한 理解가 없이는 國文學의 概念 設定에서부터 模糊하여지라는 생각에서 漢文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부르짖은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 少壯派 學者들의 作業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學論의 對象이 되고 있는 漢文學은 多樣한 背景을 풍겨주고 있다. 그러한 중에 奇妙한 것은 이러한 混亂이 당연시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정작으로 漢文學이라 稱할 때의 한문은 단순히 漢族의 文學만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요, 中國文學만을 意味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漢字로 이루어진 文章을 漢文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任意的인 規定 乃至는 誤認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中國에서는 漢文學이라는 名稱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명칭은 虛構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는 이러한 任意性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러가지 不實한 이론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살핀 후에 漢文學의 本質을 새로 찾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方法的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文學의 特性을 考慮하며 연구하기로 한다.

## II

漢文이란 中國語(文語)로 쓴 文章을 中國語로 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音으로 읽는 韓國文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中國音으로 읽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漢文이 아니라 中國文이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까닭은 中國인들이 그들의 文學을 漢文學이라고 부르지 않는 데에서도 기인된다.

漢文學은 漢의 文學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嚴密히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漢文學의 概念을 分析해 보면, 그것은 中國의 文語를 中國語로 읽는 것이 아니라, 韓國語의 音으로 읽는 文章이고,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말을 漢文의 文體로 쓴 文章을 뜻하고 있음이 밝혀질 수 있다. 添記할 것은, 종래 우리의 解釋대로 漢文學을 풀이해보면, 주로 中國文

學, 그것도 文藝作品이 아닌 經書類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小說이나 詩作品 따위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文藝作品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인정했던 詩, 또는 詩文이 漢文學에 넣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漢文學은 學術的인 理論書를 指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中國에서 輸入된 모든 글을 漢文이라 부르고 그것을 研究하는 것을 칭하여 漢文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을 익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漢學者라고 하였다. 그들은 주로 四書五經을 공부하고 그 中에서도 論語와 孟子를 많이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現代의 意味에서 살펴볼 때에 外國文學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面에서는 學問을 익히는데 있어서 하나의 基本教科目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 自國文化의 수준을 높이는 뜻이 담겨있었던 것이었다. 하여튼 漢文學(中國古典)이 인식된 바는, 하나의 基礎 教養科目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獨創性 있는 自己 學問을 하였고 따라서 많은 文集도 발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文集 역시 이러한 素養 위에서 쌓인 것이 주된 內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漢字로 記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탓으로 인하여 一般的으로는 中國의 文學과 韓國의 文學을 內容面에서나 形式面에서 混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作品에 담긴 정서를 말하는 것이며, 형식이라는 것은 文字를 분류하는 것으로써 後記하기로 함) 그리하여 그와 같은 文集 發刊 등을 위주로 한 自國의 學問을 國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國文學의 概念도 再分析 및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 國文學이라는 用語의 概念은 日帝 治下에서 日本 사람들의 現代化 過程에서 過去의 未分化 狀態의 學問의 性格을 보다 細分化하여 西歐的인 것에 맞추기 위한 分化法에 의하여 使用되어진 用語로서, 우리의 경우에는 아무런 되새김질도 없이 그대로 受容하여 부른 것이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古典文學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끝내고 整理作業을 완결 지은 뒤에 國文學(日本文學)의 體系를 수립하였고, 그 이후에 國文學이라는 用語를 만들어서 使用하였던 만큼 우리의 경우에는 現代化 過程에서 植民地治下에 있었기 때문에 自國의 古典을 現代的으로 整理하고 分析할 機會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직했던 오랜 傳統의 文化遺産을 자기 나름대로 研究 分析할 겨를도 없이 日本人들의 方法대로 우리의 것을 分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文化의 本質的인 性格이 서로 같을 수 없으며 또한 모든 文化의 樣式이 日本의 그것과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日本式 教育을 받은 新文學 제 1期生(1910~1919년에 활동)과 제 2期生(1919~1931년에 활동) 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韓國의 傳統文學을 分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無謀한 일인가! 그러한 무모의 와중을 겪은 뒤에 광복을 맞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尺)로써 우리의 傳統文化를 재단하기 시작했다. 國學에 대한 막연한 概念을 갖고 基礎教育도 받지 못했던 國學의 知識을 國學研究의

正統性 研究에 代入시키려던 이들이 急先務라고 생각했던 것은 正音文字(한글)의 보급이었다.

日帝下에서의 民族運動은 지금에 와서 多角度로 研究 展開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나라를 되찾겠다는 一念 뿐으로서 本格的인 國學의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日帝의 韓國文化 抹殺 政策은, 우리의 것을 정확히 把握하고 연구할 수 있는 機會와 여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우리 民族이 내세워야 할 가장 우수하고 위대한 유산은 우리 正音文字(한글)이었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우리의 正音文字(한글)와 우리의 말이 세계의 어느 民族, 어느 國家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優秀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보급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韓國學을 연구한 전공자들이거나 정통파가 아니라, 日本에 유학가서 現代의 學問을 공부하느라고 영국, 독일, 불란서 등의 外國文學을 전공하였거나, 경제학과 법학 등의 社會科學을 전공한 부류들이었다. 이들은 다만 愛國的 견지에서 日帝의 탄압하에서 民族意識을 高揚하고, 民族을 구원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말과 正音文字(한글)가 잃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려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 유학생들과 新學問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漢文의 實體가 漢字로 記錄된 모든 韓國民의 遺産으로 看做하였던 관계로 의혹을<sup>1)</sup>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合理的 思考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缺陷이 時代의 推移에 아무런 批判 없이 盲從하는 觀念을 그들의 인식 깊숙히 자리잡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認識不足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文化遺産이 무엇인지를 캐는 작업도 하지 않았고, 그저 막연히 애국의 일환으로 그들의 주의 주장을 펼쳐나갔던 것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重要하게 認識되었던 것은 일본의 侵略은 어쨌든 현실에 있어서의 당위이므로 近代化意識을 高揚하는 것이 急先務라는 歸結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눈에 비치는 결점을 한탄한 그들이 分析한 바에 의하면 近代化가 늦은 原因을 李朝의 儒敎思想의 탓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李朝 五百年 간의 思想을 支配했던 儒敎에도 儒敎一邊到의 問題가 있었지만, 그 儒敎를 담는 그릇인 漢文이라는 이름을 저주하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반작용으로 正音文字(한글)로 小説을 쓰고 正音文字(한글)로 詩를 짓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現象들은 그들로 하여금 現代人으로서의 生活感情에 도취되어 이러한 行爲만이 전부이려니 하는 생각을 유발하게 했던 것이지만, 이들에게도 日本의 압박과 虐待가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民族解放의 기수로 자처하여 이 民族의 선두에 서서 民族을 이끌어 나가는 先驅者요, 開化人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混亂의 渦中을 벗어나서 근 40년의 일본 압제에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인데

1) 李基文; 韓國語表記法의 變遷과 原理, (韓國語文의 諸問題), 一志社, pp.87-115.

解放을 맞은 이들은 祖國建說의 투지를 불태우느라고 東奔西走했다. 政治의 일선에 서서 活動을 하여야 했고 小說家는 小說을 써야했으며, 詩人은 詩를 써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類의 소설은 어디에 그 명맥을 두고 썼으며 詩는 또 어디에 명맥을 두고 썼는가? 日帝의 혹독한 檢閱 속에서 그나마도 극소수이지만 몇 편의 小說과 詩作品이 있었는데 그것을 唯一한 根據로 小說의 모델을 設定하고 詩의 모델로 設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델로 삼았던 小說이나 詩作品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日本에 유입된 서구의 文明이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西歐의 文明은 서구에서 우리 나라로 직수입된 것이 아니라, 日本으로 건너가서 日本式으로 변모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問題點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은 日本式이라고 불리워진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것의 正體를 예의 주시하면 西歐의 것이 日本에 들어가서 日本式으로 채 소화도 되기 전에 그 설익은 것을 다시 植民地下의 百姓이 배워다 쓴 것이었다. 日本 글이 아닌 조선 글자인 소위 한글로 西歐의 스타일을 踏襲한 小說을 쓰고 詩를 썼던 것이다.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이었겠는가마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 속에는 民族의 서글픈 感情이나 現實逃避의 思想만이 깔려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作品들이 이 민족에게 民族的 울분과 흥분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當今의 問題는 自國의 傳統文化에 대한 無知 속에서 (日帝의 세뇌교육의 영향에 의함) 한낱 감정만을 내세운 文學徒들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 버린 漢文學을 어떠한 方法과 態度로써 修正하고 補完하여 그 本質을 밝히느냐는 데에 있다. 물론 上記한 바와 같은 現象이 만연된 이유는 解放後에 光復이라는 감격 속에서 無批判的으로 繼承되어 오늘에 이르는 過程에서 아무도 이를 拒逆하려는 努力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日帝時代의 國學 研究 勢力 중에 日帝에 御用당한 혹은 親日行爲를 은밀히 행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國學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러므로써 漢文學에 客觀的인 態度를 유지함과 동시에 보다 明確한 本質 究明의 作業을 벌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 III

古來로 韓國이 漢字, 漢文을 輸入하여 그것을 活用하여 나름대로의 文化라는 生活樣式을 꽃피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러한 漢字를 바탕으로 하는 漢文學의 運用은 訓民正音이 創製된 以後에도 끊이지를 않았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民族이 漢文學을 受容해 온 態度와 그 內容의 본 모습을 究明하기 위하여 用語에 대한 새삼스러운 정리 작업을 벌일 것이다.

文字란 發生과 製作過程이 어떻든간에 그것이 人類文化의 發達過程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道具라는 것은 認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文字는 어느 特定 民族이나 特定 國家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특정 국가나 民族의 所有物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文字라는 것이 本質上 意思傳達 記號, 즉 媒介技能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동시에 여러 社會에 傳播되어 여러 集團의 共有物이 되는 것이다. 정작, 問題가 되는 것은 人類가 서로 交流하며 살아오는 동안 어느 種族이 어떤 文字를 어떠한 文化의 도구로써 活用하였는가가 問題인 것이다.

漢字의 경우, 中國이 統一되기 전인 部族國家 時代의 한 部族이 發明한 것으로서 그러한 文字를 다른 部族들과 함께 使用하면서 中國大陸에 있어서 文化圈의 核心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中國大陸의 文化圈을 조종하던 漢字는 그 使用 部族 가운데에 中國統一에 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漢字를 使用하고 그들의 文化를 成長 發展시켰던 것이다.<sup>2)</sup> 이러한 現象들을 자세히 究明해보면 漢字 製作에 참여하지 않았던 民族들도 漢字를 사용할 權利가 있다는 당위를 알아낼 수 있다.

前述했듯이, 文字는 媒介技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特定 種族만이 그것을 使用해야 한다는 假定이 成立될 때에 그것은 死語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發明이 된 文字는 모든 種族이 使用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이다.

이 地球上에도 많은 種族과 國家들이 存在하지만, 그 많은 國家와 種族들이 모두 自己들 나름대로 文字를 發明하여 쓰고 있지는 않다. 그들의 경우, 文字는 共用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獨特한 文化를 形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內面을 살펴보면, 그것은 文字는 같아도 그것을 수용하고 活用하는 方法이 다른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구라파의 경우, 言語에 있어서 하나의 根幹이 되고 있는 로마자를 가지고 영국·불란서·독일 등의 각기 特異한 言語를 記錄할 수 있는 文字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높은 文化를 形成하기 위하여 그들 文字의 根源인 라틴어의 연마에 가일층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敘述로써도 충분히 그동안의 論難의 對象이 되었던 한글 專用論이나, 國漢文 混用論 등의 爭論들이 그다지 뜻이 없는 無意味한 것, 즉 空理空論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文化가 서로 相互作用을 하고 있고, 文字는 그 원소이므로 당연히 서로의 交流를 許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 專用論은 文化의 斷切, 나아가서 孤立된 文化를 갖게 되고야 만다는 위험성을 내포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側面에서 살펴볼 때에 이러한 爭論들은 論爭의 餘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問題는 漢字에 의하여 形成되어진 漢字文化의 수용태도에 신중을 기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깊은 研究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 李基文, 前揭書 pp.47 - 51.

글자(文字)와 글(文)에 대한 概念은 理論的으로 定立되었다하더라도 이의 代名, 우리가 論旨를 모으고 있는 漢文學에 代名시킬 수 있는 조리정연한 체계는 서 있지 않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文字에 대한 概念을 分明히 한다는 것<sup>3)</sup>은 文學 더 나아가서 漢文學의 概念을 設定할 수 있는 確實한 根據를 남길 수 있기에 重要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漢字는 文字이다. 그러므로 漢字로 된 文學은 漢文學이라고 불리운다. 또 다른 側面에서 이야기 될 때에는 中國의 漢代에 이루어진 文學을 漢文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嚴然한 事實에도 불구하고 混同하여 使用하고 있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中國의 漢代에 이루어진 文學을 漢文學이라고 부르면서 그것 이외에 中國文學 全體를 부를 때 漢文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漢字로 된 漢代의 文學이라는 뜻이 아니고 漢을 中國의 代名詞로 보고 漢文學을 中國文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中國人들은 漢을 中國의 代名詞로 使用하고 있지 않다. 또 그렇게 쓸리도 만무한 것이다. 世界人들도 中國을 漢이라고 呼稱하지 않는다. 그런데 唯獨 우리만이 中國을 漢으로 여기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中國의 漢나라 時代에 그들의 많은 文物이 우리 나라에 傳來되었던 까닭으로 인하여 우리의 文化가 漢나라의 影響을 多大하게 입었다는 데에도 기인하지만, 中國大陸을 통치했던 主세력이 漢族이었기 때문에 漢族이 中國의 主人公으로 認識하는 데에서 오는 結果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漢이 곧 中國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文學에 代名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즉 漢文學은 中國文學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歸結을 보는 것이다. 換言하면 文字는 共有되어지기 마련이므로 漢字가 中國의 文字를 象徵하여 代表로 불리워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文學은 그 概念이 필히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漢字의 여러가지 意味, 즉 多意性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위에서 漢文學은 中國文學이 아니라고 감히 단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漢文學은 漢字로 記錄된 文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規定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漢字로 記錄된 文學 가운데에는 中國文學도 있고, 日本文學도 있고, 韓國文學도 있을 수 있으며, 漢字文化圈의 모든 나라마다 제각기 獨立하여 存在하는 漢字文化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人類文化의 變遷過程에서 있던 글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글자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같은 漢字로 시작되었던 文化는 그 모습이 시간을 더해 갈수록 제각기의 個性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漢字文化, 즉 漢文學이라고 부르는 名稱의 內容物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根據를 提供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欲求本能에 따라 便利를 圖謀하기 때문에 文字가 없으면 다른 種族 혹은 다른 國家의 文字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것이 不便하면 새로 만들기도 한다. 文字란 人間

3) 漢文學研究, 國語國文學會編, 正音社, p.18.

이 자기의 意思를 表現하기 위하여 만든 한갓 道具이며 符號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文字 自體를 두고 文化的 性格에 대하여 云云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語不成說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文字를 使用하여 그들의 생각이 表現된 結果가 곧 그들의 文化的 尺度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論理를 提供받을 수 있다.

「文字는 같아도 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構造를 가지고 있는 漢字를 가지고 中國인이 글을 만들면 中國 글이 되고, 日本人이 글을 만들면 日本 글이 되고, 韓國인이 만들면 韓國 글이 되는 것이다. 中國 글은 中國文이고, 日本 글은 日本文이며, 韓國 글은 韓國文이다. 구라파의 예를 들면 로마字를 가지고 이태리인이 글을 만들면, 伊國文이 되고, 영국인이 글을 만들면, 英國文이 되는 것이며, 독일인이 만들면 獨國文이 되는 것과 같은 現象인 것이다. 세계의 모든 文字가 모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에 漢文學의 概念은 分明해지리라 본다. 韓國은 오랜 歷史를 通하여 漢字로 글(文)을 만들어 왔다.

李朝 말까지는 新聞(한성순보)마저도 漢文을 使用한 정도였다. 그런데 過去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2世紀頃에 輸入된 것으로 推定이 되는 漢字가 15世紀에 世宗이 創製한 訓民正音에 의하여 制動이 걸린 것이다. 世宗朝에 와서 文字에 대한 意欲이 多大해진 朝鮮은 漢字가 너무 어렵고 광범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글자를 考案해서, 보다 널리 普及하려는 目的에서 訓民正音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물론 세종의 흥중에 정치적인 배려는 추측이 불가하므로 언급을 회피하지만, 이러한 欲求는 이때까지 많은 文化遺産이 담긴 漢字의 使用과 더불어 並行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 IV

近來에 우리의 國文學 研究의 業績을 總體的으로 說明한 著書가 없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까닭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선 外現되지 않은 갈등 때문이기도 하리라. 그런 중에도 韓國文學史의 體系를 定立하려는 意識이 民族主義 史觀에 立脚하여 並記한 것이 趙潤濟의 韓國文學史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問題가 되는 바는 最近 20~30여년 동안 少壯學者들에 의하여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예측되는 研究業績에 대한 論及이 全無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現象은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 論爭의 정점은 역시 漢文學에 대한 總整理가 시급한 마당에 아직도 수용적 태도에 관한 왈가왈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韓國의 漢文學은 記錄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고조선 시대 및 고구려, 고대 新羅의 作品으



로 보이는 고대 가요 몇 편이 효시로 불리워지고 있음을 보는데 이들의 형태를 보면 漢代의 詩風을 지녔고 ‘新羅에 접어들면서부터는 文選의 形式을 脫皮하지 못한’<sup>5)</sup> 諸群을 들 수 있다. 당시 最高의 文章家였던 崔致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문화권 내지는 文學이 成立하기 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高麗가 그들 王朝의 特性대로 崇佛政策에 얽매어, 漢文學을 崇尚하고 發展시켰다 하더라도 이의 性格을 打破치면, 文學外的인 흐름으로 漢文이 使用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文學史의 體系成立을 위하여 高麗의 漢文學을 들먹이기는 애매한 노릇이다. 그나마도 이러한 可能性(國文學의 成立을 위한 한문학의 태동)도 鄭仲夫 등의 武臣亂에 의하여 시들해지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武臣들의 反政府的蜂起의 화살은 文臣들에게 돌려져서 기껏해야 「경기체가」라는 기형의 文學形態를 產出하고 말았다. 이 受難期 이후에 올 시련, 혹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도피를 내세우며 潛跡, 隱遁한 자들의 손에서 나온 作品 몇 점뿐이었다. 이렇다할 漢文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李氏朝鮮의 成立은 대단한 意味를 부여했다. 첫째, 樂章이 그러했다. 外現되어진 狀態만을 考察한다면 正音文字(한글)을 사용하였다는 인식을 받게 되었지만, 이 作品들은 거의 漢文學의 體系整備을 위한 寄與라 불리울 수 있는 것들이었다.

朝鮮 建國·初에 世宗의 文化事業은 대단히 활발하였고, 우리 歷史上 가장 特記할만한 사실인 訓民正音의 創製는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可能性을 보여주었다. 이와 반면에 몇 차례의 士禍와 黨爭으로 인하여 한문학도 침체일로를 걷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끊임없이 李朝의 政事를 그리고 文化의 混亂을 빚은 것이 黨爭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漢文學도 黨爭과 士禍의 渦中에서 體系的으로 整備될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이 過程을 거쳐 英·正朝의 文化成熟期에 이를 때까지의 漢文學은 겨우 몇 사람의 손에 유지되었을 뿐이었다. 英·正朝 時代에 이르러 北學派와 西學派 등은 실로 科學的인 새로운 思考方式을 가지고 지난날 性理學派의 觀念論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成長하였다. 그리하여 이룩한 것이 實學인 것이다. 이것은 주로 北學派에 의한 움직임이었지만 이 때에는 漢文學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는 西學이 文體反政策을 편 正朝의 편에 편승하여 北學의 活動을 저지하였던 것도 作用한다.

甲午更張을 契機로 하여 新文學 運動이 展開됨에 따라 漢文 폐지론이 처음 등장하게 되자 여기에 참가한 찬 반론자들이 나타나 亂立狀態를 벌였으며, 이것은 解放以後 지금까지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漢文에 얽힌 이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日帝는 中國에 대한 우리 民族의 感情을 刺戟하였다. 즉 오랜 동안의 中國과의 交流를 단순한 事大主義 思想으로 歸着시켜 絶緣을 꾀한 것이다. 이 첫 걸음으로 漢文폐지론을 증용하였던 것이며 실제 學者들

4) 李家源：韓國漢文學史，民衆書館，pp.8-10.

5) 前掲書 pp.8-10.

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 漢文廢止論을 主張하게 되었던 자들도 있었다. 이 당시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 思朝가 現代文學의 여러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였기 때문에 그 이후 漢文學을 研究하는 學者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하여 韓國의 漢文學은 가히 全廢의 危機에 빠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하나의 壁을 形成해 놓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漢文學 研究에는 실상 두 가지의 問題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주 漢文學 存廢의 危機를 겪지 않으리라는 保障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漢文學이 우리 國文學史에 絕對的인 比重을 차지한다는 豫찬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韓國文學의 傳統을 接脈시키는 데에 漢文學의 存廢가 直結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첫째, 천여년의 悠久한 歷史를 傳해 내려오는 많은 書籍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認識하고, 研究하려면 이에 대하여 合理的 思考와 科學的인 整理가 必要한 데, 이것은 個人的 힘이나, 一部學會의 움직임으로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漢文學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繼續한다는 것은 계속 亂立狀態를 超來하여 韓國文學 體系樹立이 점점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와, 둘째 국문학의 경우, 研究를 業績 위주로 分析하려 한다는 問題點이다. 새로운 意見에 귀를 기울이려는 아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작 가치를 남길만한 연구를 하는 데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이며, 이러한 現象들은 날이 갈수록 더 露出되어가고 있다.

## V

우리는 우리의 文字와 그에 의한 文學의 範疇 設定을 거듭해 왔으며 그것이 여러 研究에서 밝혀질 때마다 區區 各色이었다. 이러한 理由는 저마다 이 계통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方向이고 態度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하여 苦心을 하여야 할 것이다.

訓民正音(한글)과 漢字,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우리의 文化遺産을 정리하여야 하는가라는 問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當面한 課題이면서도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近來의 學問은, 아니 古來로 그러하였지만 感情에 치우쳐서 國文學 研究의 경우, 民族主義의 기치를 내세우다가 國粹主義를 標榜하여 그 狀態에서 그들의 學問的 態度에 國文學을 代入시켜 分析, 應用한다면, 이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고 말 것이다. 學問을 하는 所以는 바로 이러한 데에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理念을 바탕삼아야 바른 研究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方法的으로는 合理的인 사고를 同伴하여야 하는 것이다.

歷史를 바르게 알려면, 우선 先人들의 生活과 感情을 알아야 한다는 自明한 理致에 비추어 볼 때, 그 生活 속에서 祖上들의 精神 및 生活의 智慧를 찾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特異한 점을 연상토록 해야 한다.

어찌하여 聖君인 世宗大王이 訓民正音を 創製하고도 漢字, 즉 中國文字에 대한 言及이 없었겠는가? 그것은 中國의 文字인 漢字가 우리의 文化 속에 깊게 침전된 까닭에서 言及을 회피하기도 하였겠지만, 오히려 우리 文化의 一部分이 되었음을 認識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다. 歷史를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當爲에 依한다면 一種의 順理라고 하겠다.

우리의 國文은 두 가지가 있다. 漢字로 表記된 漢文이 있고 正音文字(한글)로 表記된 諺文이 있다. 한글은 文字의 이름이지 글은 아니다. 풍교롭게도 正音文字의 이름을 누가 한글이라고 名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글이 우리 文(글)을 지칭하는 것처럼 誤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韓國文學의 根本的인 混亂이 야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文字 이름이 한글인데도 또 그렇게 規定된 것인데도 한글이란 이름의 不合理性 때문에 우리의 글(文)까지도 한글로 알고 있는 無知를 범하고 있다.

한글은 우리의 글이 아니다. 우리의 글은 漢字로 表記된 글인 漢文이 있고 正音文字로 表記된 諺文이 있을 뿐이다. 이 文字와 文에 대한 分明한 概念이 없이는 韓國文學을 論하기가 매우 困難하다. 文과 文字에 대한 分明한 가름도 없이 어떻게 한 나라의 文學을 云謂할 수 있단 말인가. 하루속히 是正되어야 할 重大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이 解決되므로서 韓國文學史上 漢文學의 位置는 自然히 밝혀지리라 믿는다. 다시 말해서 韓國文學에는 漢字로 表記된 漢文文學이 있고 正音字로 表記된 諺文文學이 있어 이 두 文學이 兩立되는 것이다. 諺文과 漢文은 並行使用하여 온 것이 韓國文學史이다. 그러므로 諺文만을 가지고 韓國文學이라고 하는 것은 祖上을 否認하는 反民族의 行爲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世宗大王은 이미 諺文廳을 政府機關으로 設置하고 諺文 普及에 힘 썼으며 모든 中國의 經書類와 佛經類 史書類들을 諺解(번역)하였다. 그 當時 兩班 신비들이 諺文을 賤視하였다면 그 힘든 中國書籍들을 누가 읽고 諺解하였다는 말인가. 일부 訓民正音 創製에 反對를 한 사람들의 極言을 꼬투리잡아 그렇게 實際로 諺文 普及에 힘써 온 先人들을 完全히 無視한 한글 專用論者들이 있다. 많은 古代小說이 諺文으로 쓰여졌고 그것을 쓴 사람은 모두 양반층이다. 왜 兩班들이 諺文을 무시했단 말인가. 그들은 諺文으로 쓸 것은 諺文으로 쓰고 漢文으로 쓸 것은 漢文으로 썼던 것이다. 그러한 實例는 現代文學이 아닌 우리 古典文學中에 諺文으로 表現된 것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다. 韓國文學史는 文學이 있어온 바 그대로를 敘述하여 後世에 전하는 것이지 그 어떤 一部分만을 가지고 文學史를 論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歷史的 史實을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이 歷史의 記述이 아니기 때문이다.

## Summary

### The Han Literature's Positio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Shim Yeo-taek*

Cultures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all ages and countries. This principle has no exception. Letters, which are part of the culture, interact with one another naturally, and literature does also because it is based on letters.

From ancient time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continent of China is the root of oriental culture. As the leaders of Chinese history changed many times, many tribes ruled the region by turns. Among them, the Han tribe ruled it longer than the others did. By the aftermath, we, who believed that the tribe of great influence in China is the Han, interchanged peacefully with it. It is significant that we took the Han literature and tried to make it ours. This is how so-called Han literature of Korea was born. Therefore, the Han literature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in its content and form. The research of Korean literature, which has been progressing actively these days, has some problems. There are three assertions; the first is that the literature written in Han letters in Korea should be rejected in order to establish a real Korean literature, the second is a compromise proposal: the Han literature in Korea can be included in a broad fiel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Korean literature. The third proposal is that the Han literature in Korea is our literature naturally. This research follows the third assertion. If we excluded the Han letters which compose our culture from our literature, what is left to us? There were several proposals that the Han letters should be abolished. On account of these, the Han literature written in Han letters could not help but diminish. If it is intended that they shall deny history before Hun Min Jong Um, at which time there were no letters, the Han letters can be abolished naturally. But the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in its entirety, so it is absolutely wrong that the history before Hun Min Jong Um should be denied.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deny Han literature, because our history of that time was written in Chinese letters. Especially, the Han literature was represented with our emotions and changed into the Han literature of Korea itself. Anyway,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approve the existence of the Han literature nowadays, and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support this claim regardless of the assertion of the Han letters abolition. In conclusion, when we integrate and analyze some aspects toward the Han literature, we can find that Han letters written from ancient times became part of our life. Han letters which were used in Korean letters' absence at that time, became original letters and bore the Han literature of Korea which could be represented with our ideas and emotions.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Han literature is not different from ours, but is included in the Korean literature itself.